

尹 “韓日관계 새 전기…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진전해야”

≫ 1면 ‘韓美日3국 전략적 공조’서 계속

尹 대통령 “원폭피해자 추모 뜻 전한
日 기시다 총리의 용기 기억될 것”

이 자리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 동포인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준오 한국원폭피해대책특별위원회 등 10명도 함께 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악수를 나누고 피해자들을 향해 묵례한 뒤 평화기념공원 내 국제회의장으로 이동해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방한 시 기시다 총리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산업·과학기술·문화예술·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을 제기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고 함께 하며 앞으로도 정상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

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 이후 6개월여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자리에 모였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10분 가량 진행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도윤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韓日정상,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21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헌화할 꽃을 들고 위령비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국가핵심기술 기업 인수때 국내기업도 ‘심사’ 거친다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등 73개 기술

앞으로는 국내기업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도 심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 중이다.

개정안은 국내 자본이 국내에 사모펀드를 설립해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기관을 인수합병할 때에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 인수합병을 할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외 법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제재 수단이 있으나, 한국 법인 간 인수합병일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

고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분야 73개 기술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통째로 인수합병당하는 방식으로 산업기술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3건 적발됐는데, 분야별로 반도체 24건, 디스플레이 20건, 이차전지와 자동차가 각 7건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번 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상반기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해 정부안으로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어”

≫ 1면 ‘항공빅딜, 안갯속’서 계속

이에 항공 업계에서는 EU와 미국이 합병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합병이 무산되면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대한항공은 그동안 합병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에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는 등 투입비용이 결국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독자 생존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등 자회사도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또 자국 산업 이익을 챙기려는 미국과 EU 등이 합병 조건을 추가할 경우

그에 따른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미주 등 일부 노선 반납을 요구해 자국 항공사들이 반사이익을 얻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영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현지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과 코드셰어(공동운항)을 하고 런던 히스로공항 슬롯 7개를 넘긴 바 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큰 합병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합병을 준비하면서 외항사에 슬롯을 내어줄 경우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은 악화된다”며 “초대형 항공사 출범을 위해 양사의 실익이 축소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산계곡, 침백공원, 축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람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홍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